

#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들, 세션 7, 해석학적 원리, 3부, 요나서 소개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해석학 원리, 3부, 요나서론입니다.

금요일에 있을 시험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시간 전체를 주겠다. 대략 100개의 질문이 있으므로 해당 책을 매우 철저히 다룰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이 됩니다.

때때로 나는 한 구절을 제시하고 그것이 여섯 선지자 중 누구에게서 왔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각 선지자의 강조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독특한 강조점이 있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을 주고 한 마디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튀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 단어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하박국. 그 여섯 선지자. 일부는 객관식이고 일부는 참과 거짓이며 일부는 채워져 있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포함됩니다.

NIV 또는 새로운 RSV가 아마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두 가지 버전일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외국어는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 강의 계획서에 명시한 것처럼 특히 두 가지 버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혼동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해석은 없을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것과 메모나 해설이나 도움 없이 성경 자체만 읽으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광기의 방법은 부분적이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하거나 2차 문헌이나 요약물 읽는 것만으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며, 성경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훈련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고든 대학교 학부생이 강조하는 초점입니다. 성경을 알고, 설명을 듣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 중 학부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학교 교육에 관한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는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면 당신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신학교에서 수강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성경을 다른 학문과 연관시키지만, 성경을 안다고 가정하여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나 설교나 상담, 교회사 또는 교회 행정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루고, 성경 본문 자체를 이해하고, 플레이어를 알고, 사건을 알고, 누가 누구인지 알고,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참고할 틀이 없으면 성경 연구 토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Gordon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신학적 성찰을 위해 필요한 기초와 준거 틀을 제공하고 이것이 다른 학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성경을 다른 학문과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성경에 관한 질문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이 창조에 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이러한 문제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강조점이 될 것입니다. 초점은 성경 본문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냥 격려의 의미로 주고 싶었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성경은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은 거래의. 이 운동이 평생 동안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22세 때 신학교를 막 시작했을 때 프로스트 홀(Frost Hall)에 앉아 있었는데, 복음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한 학기 과정에서는 공관복음 3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각 장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누군가가 주제를 언급하면 해당 장의 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담론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과 같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어떤 한두 가지 기적이 발견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야 했던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 자체와 함께 앉아서 성경을 마스터하도록 강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본문.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썄요,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강조점을 아는 좋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평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들을 때 그것이 독특한 구절이라면 성경 전체에 빛이 번쩍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님의 천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 주님의 천사, 말라크 야훼, 주님의 천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름으로 천사, 구체적인 이름을 얻기 시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명책, 그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더 이전의 전례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신약성서에만 나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 안수는 단지 신약의 사역에 대한 안수나 사도행전에서처럼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수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며, 머리 속에서 주제별로 연결을 시작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해하는 데 실제로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는 누적되어 형성되며, 이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적절한 경우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데 관련된 일생의 생명선입니다. 나는 장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94세가 되는 해에

고든 대학의 학생이 성경에서 토론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안고 오면 성구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20-21세에 성경을 마스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나오든 그는 평생 성경을 공부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이상이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이 성경적 설교, 성경적 상담, 성경적 삶을 믿는다면 실제로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오늘 저는 예언서와 그 원리 중 일부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요나서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을 결정론적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현대 요르단 주에 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이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소하기 위한 강렬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종말론이 정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원칙입니다. 종말론은 정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잠재적인 해악,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더 큰 해악에 대해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결정론적으로 읽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슬람교도들, 즉 자신의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느낄 때, 개인적으로 알라가 원하신다면 인살라 라는 작은 표현이 던져지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14세 때 고든에 왔고, 이라크와 이란 사이의 전쟁에서 탱크 앞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거기 있었고 즉시 파괴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에게 배웠습니다. Kay sera sera,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그 포탄이나 총알을 가져갈 운명이라면

당신은 곧장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통제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위태롭거나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제게는 유대인 랍비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성경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살아온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옹호한 최초의 분이셨다고 말했습니다.

피쿠아흐 네페쉬 의 원리입니다 . 다음 학기에 제 헤셸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거기에 Abraham Joshua Heschel이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저서 중 하나인 pikuach nephesh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도덕적 절대성이 있고 충돌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희망적으로 생명을 구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삭을 따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의 법을 어길까 걱정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곡식을 따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도 주릴 때에 진설병을 약탈했는데, 이는 신약성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바깥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들을 먹일 떡을 취하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셔서 상충되는 두 가지 절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돕는 직업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의학, 치과, 과학, 인류 발전을 위한 것들.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에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욘 키푸르(Yom Kippur)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차량입니다. 나는 안식일 동안 욘 키푸르(Yom Kippur)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욘 키푸르(Yom Kippur)와 안식일(Shabbat)이 우연히 함께 무너졌습니다. 거리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차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급차뿐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성경에서 인식하는 것의 성취에 너무 열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명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매우, 매우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것. 그러므로 종말론은 정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생명의 파괴를 정당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일부 예언에서 여러 단계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성경으로만 시작한다면 이사야 7장 14절을 좋은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에 속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동정녀 탄생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서는 그 특별한 점에 대해 분명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다: 보라 젊은 여자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태어날 어린이가 처음에 이해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 구절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다음 장에 언급되고 이사야의 아들인 마헬살랄하스바스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다음 장인 8장에서 두 번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앗수르의 거대 세력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계를 보존하시는 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지역적 또는 직접적인 언급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런 종류의 예언적 의미,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 사람이 이 땅을 걸을 때를 기다리게 될 것이며,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시대의 아이의 탄생은 신약의 의미에서 처녀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아기는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가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처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이를 낳게 될 이 젊은 여자는 분명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마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도 사용되었으며, 젊은 여자가 임신하여 그 이름을 지닌 아이를 낳을 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사용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부 예언에서 다중 성취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시간을 뛰어넘어 갑자기 예수님 안에서 예언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적 의미와 지역적 참조를 가졌습니다. 다른 예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에 관해 예언하는 곳은 구약성서뿐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31장 31-34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이르리라 말씀 하고 있다.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그의 동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다시 이스라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해로 낮의 빛을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이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직 해가 매일 빛나고 달과 별이 밤에 소리를 내며 바다가 성난 것 같으면 자연계의 이런 것들이 내 눈에서 사라지면 내 후손도 사라질 것입니다. 즉, 36절에 표현된 대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계속 존재할 것이며, 결코 존재하지 않고 내 앞에서 국가가 될 것입니다. 36절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면 단순히 '좋아요,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인용문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성취되었는가? 확실히 그 의미는 히브리서 8장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언약을 볼 때 성취라는 측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레미야 백성의 육체적인 씨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거가 시내산에서의 기업 선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그 수를 늘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백성 가운데 그 율법이 내부적으로 기록되는 완성의 때까지 그분의 선택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암시한 바와 같습니다.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오시고, 야곱에게서 불경건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였던 물리적 씨앗의 일종의 누적적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이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바울도 단언하는 것에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 중 일부는 점진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1장은 아브라함 가족의 확대 버전인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의 확장판.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 언어의 의미를 소진시키는가? 문맥상 읽을 때 방법론적으로 다시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시작하여 신약성서로 가나요? 신약 학자인



내 기독교 친구들 중 상당수는 신약부터 시작하여 종종 구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성서의 마지막 말씀이 사물에 관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이나 요엘 2장을 보면 아마도 일종의 다중 성취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엘 2장을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금요일을 준비하기 위한 주님의 날이 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큰 구원이 있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 장과 절은 성경 시대 이후 수백 년이 지나서야 거기에 삽입되었습니다. 그 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민족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내 땅이 나누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곳을 침범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제 그 언어는 시적이지만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친구들이 성경을 열 때 제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대 성경을 가로채서 가져다가 재해석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의 성경을 가로채고 돌아와서 그들의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때때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본문을 어떻게 읽는지 물어보는 것이 때로는 교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에 글을 쓴 위대한 유대인 학자인 조셉 클라우스너(Joseph Klausner)가 말했듯이,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의 세속적, 물리적, 때로는 정치적 차원까지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든에서 학생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에서 공부하고 물리적 지리와 연결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시온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이 세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 공동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예루살렘이며, 적어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체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어야 합니다. 나의 좋은 동료인 Hildebrand 박사를 위한 플러그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는 여러 이행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간략한 원칙인 대응 또는 동등성의 원칙이 특정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를 신속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는 2장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취를 통해 평화가 무엇인지 선지자에게 시적인 언어로 계시하기를 원하실 때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칼을 쟁기에 던지고 창을 낫에 던지리라. 더 이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전쟁을 훈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칼과 창은 일종의 평화이고, 실제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에 대한 지식 자체의 상실은 이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등가성 측면에서 보면 탱크가 될까요, 미사일이 될까요, 전쟁 도구와 창, 칼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투기가 될까요? 그리고 여기 사진은 이것을 농기구,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습과 가지치기는 전쟁 중인 백성이 아니라 평화로운 백성입니다.

Deers 와 농장 홀이 겠습니까? 이 다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등성의 개념, 또는 아마도 우리는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날 옴 하후(Yom Ha'Hu) 가 했던 표현이 있는데, 이는 선지자들에게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사야 19장에는 그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 날에는 애굽에서 앗수르로 가는 대로가 열리리라.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롬과 하나님의 메시아 통치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시리아 대신 이라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리빙바이블이 그 아이디어를 투사하고 현대화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시리아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에 관해 이야기하자마자 아시리아의 맥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앗시리아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인들은 앗시리아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이 함께 예배할 것이며 그 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와 더불어 세 번째가 될 것이다. 지상의 축복.

그래서 이라크인, 이집트인,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이 땅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앗수르인들이 이집트인들을 축복할 것이며,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아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내 손으로 만든 앗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이것이 평화를 위한 보편적인 비전입니다.

세 신, 알라, 아도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와 연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름을 변경합니다. 1935년, 페르시아는 이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읽는 많은 이름, 특히 성경에서 망원경으로 시간의 고속도로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휘에는 단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낙담입니다. 그 단어는 우울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울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저,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황금 시대라는 개념을 소개했기 때문에 항상 희망의 종교여야 했습니다.

그 역사는 이 땅에서 평화, 정의, 정의의 절정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선지자들의 언어는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국가로서, 레이블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지역은 성경 시대에도 매우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한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키네레트입니다. 하프 모양의 바다.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원칙. 예언은 무엇보다도 원래의 청중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연구할 때 그 메시지가 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예언은 항상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대중적인 개념을 일축합니다. 현 세대에게는 시정과 질책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도덕적 의로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더 나은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어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죽은 문명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이집트인을 연구합니까? 보스턴의 헌팅턴 애비뉴. 아니면 대영 박물관에서요. 아니면 고전 이집트 문명이 발견되는 뉴욕시에서도요.

우리는 어디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연구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문화에서 가져온 멋진 작품을 보기 위해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Rhode Island School of Design)로 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갑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밖에 있는 성경창 박물관으로 갑니다.

이 고대 문명.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고고학자, 역사가, 언어학자, 성서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공동 작업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학적으로 경고하자면, 당신과 나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조화롭고, 전제에서 결론까지 훨씬 더 논쟁하고, 신중하게 고안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서양 사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매우 복잡합니다.

나는 그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을 조심할 것입니다. 성서는 여러 면에서 사물의 자격을 인정하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특별히 이해하여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싶은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약성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성취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는 일대일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다가올 일에 대해 말했고, 신약에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행은 종종 특정 아이디어를 가득 채우는 의미를 더 많이 전달합니다. 학자들이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성경의 전편 .

성경의 가장 충만하고 깊은 의미. 감각 플레니아 .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적어도 성경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유일한 때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멍청해서 거의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아기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95번 도로를 따라 내려가서 나중에 로마인들이 불렀던 비아 마리스(Via Maris)를 택했습니다. 아마도 델타 지역 어딘가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제 헤롯대왕의 통치기간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입니다. 그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에 관한 달력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으니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이 응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는 금요일 시험을 위해 당신이 읽은 내용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 이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 에서 그것을 충족시킵니다 플레니아 방식. 이제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2개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테크니아 입니다 너희 ,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본래 아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는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 둘째 아들의 의미는 그의 첫째 아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극적으로 요약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러므로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더 큼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 유형과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pleior 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의미는 plenior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에서 이 온전한 의미를 자주 찾으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넓어지고 의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을 때 놀라운 순간도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신약시대에 구약성경 본문이 예기치 않게 성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대중이 기대했던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워 플레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삶에서 나타난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 통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방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왕. 이제 그분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는 것을 중재하십니다.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영적 통치는 결국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통치로 이어질 것이며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곳에서 의와 공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들은 실제로 멸망당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신성한 왕권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왕들이 있었고 메시아가 왕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일치하는 하늘의 대응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성전도 있었지만 땅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놀란 것은 죽기 위해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는 정치적인 인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의 주님의 종인 아베드 야훼 개념을 구약의 다른 가닥들과 함께 모으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이 섹션에서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요나서에 관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다루겠습니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큰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큰 신에 관한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학 자체에 대한 신학화나 이해의 많은 부분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이며 세상에서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웁니다. 이 책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구약 시대에 야훼에 대한 국제적인 사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매우 편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우리 밖에 양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순찰하던 초강대국이었던 이교도이자 비이스라엘인 공동체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야 할 사람들을 갖고 계십니다.

비둘기라는 단어는 실제로 요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요나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요나와 같습니다. 비둘기.

신약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식 형태입니다. 조나스, 조나스.

같은 단어. 전통적으로 이 책은 요나서의 기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1에서는 그는 아미타이(Amittai)의 아들로 불린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요나가 출신인 마을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드헤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이 성장하신 지역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z. 스불론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스불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 스불론 지역에서.

스블론은 나사렛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드헤벨.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이군요.

수백 년 후에 갈릴리에서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북쪽 왕국의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영역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 왕국에서 온 호세아가 북쪽 왕국 사람들에게 말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왕국에서 사역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는 남왕국 드고아에서 왔고 북왕국에서 그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7, 해석학 원리, 3부 및 요나 서론입니다.